

농가소득 효자 노릇 '톡톡'

익산 마을전자상거래, 원예농산물 10억원 매출... 제 값 받는 농산물 판매 구현

익산 마을전자상거래가 원예농산물 매출 10억원을 달성하는 등 농가 소득 창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이달 현재 기준 마을전자상거래를 통한 원예농산물 판매액이 1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원예농산물 율해 판매 목표액인 50억원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시는 농산물 新판로 개척 지역 내 농산물 물류 서비스 구축 등 농가 소득 창출과 편의증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먼저 새로운 판로를 개척을 위해 한국유통진흥원과 라이브방송·우체국

쇼핑몰 판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월부터 농산물 라이브 방송이 두 차례 이루어질 예정이며, 우체국쇼핑몰에서는 마을전자상거래 다이로움 지역브랜드관을 개설하는 등 농산물 온라인 판로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어 농산물 물류 사각지대 해소와 당일배송 실현을 위해 농가와 다송권역 중앙유통거점센터 간 순회·수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택배 수요 증가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디지털 물류 서비스 혁신으로 물류비 절감 농산물 판매증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당일배송으로 시

민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안전하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순회·수집 기사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시는 지역 농가들이 판로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지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안파 가격이 폭락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시 마을전자상거래 판매기획전을 통해 약 1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며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는 통계지료를 기반으로 한 시민 맞춤형 행정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30일 부서별 통계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발표와 시상식을 가졌다.

통계 활용 5개 우수사례 발굴

익산시, 통계 활용 '시민 맞춤형 시책' 추진

익산시는 통계지료를 기반으로 한 시민 맞춤형 행정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30일 부서별 통계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발표와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시상식은 부서에서 발굴한 208개의 사례 중 효과성·활용성·확산 가능성·자료 신뢰성·독창성을 심사해 선정된 5개의 우수사례에 대해 진행됐다.

선정된 사례는 △귀농·귀촌 실태분석에 의한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맞춤형 청년정책 △청년·신혼부부 주거정책 수립 △AI말뭇·케어로봇 지원 관련 고독사 위험가구 조사 △통계 활용을 통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

강화 방안 등이다.

이를 토대로 시는 행정자료의 효과적인 활용과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수립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번 심사에 참여한 전북연구원 이강진 대도약정책지원단장은 "미래지향적 우수사례를 통해 시의 정책이 시민의 요구에 맞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오택립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통계 활용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시민 맞춤형 행정이 되도록 통계를 적극 활용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눈치보지 마시고 군산으로 오세요'

금강습지생태공원 '눈치보지마시개길' ... 반려동물 동반 전복여행 추천지 선정

반려동물과 함께 눈치 보지 않고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금강습지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한 금강호 관광지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추천 여행지인 '눈치보지마시개길'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눈치보지마시개길'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전복여행 '전복에 오시개' 사업)로 전북 내 반려동물 동반 전복 여행지를 선정해 관련 이벤트와 팸티켓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눈치보지마시개길로 선정된 금강습지생태공원은 금강변을 따라 여색 산책길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금강호 갈대밭과 야외학습장 관찰



반려동물과 함께 눈치 보지 않고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체협장 넓은 광장과 워터, 무인자전거 대여소 등 편의시설과 함께 공원 곳곳에 원무마과 벤치 등 쉬어갈 수 있는

시설도 갖추어져 있어 반려동물과 함께 한가로운 산책을 즐기기에 적합한 비대면 여행지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확대 설치

군산시가 전기차 운전자를 위해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역 내 급속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시는 급속 전기차 충전시설을 은파유원지 등 5개소 공영주차장에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9억원의 사업비로 차량 이동 및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100kW급 급속 충전기가 설치될 계획이다.

설치 장소는 은파유원지 제1주차장,

예술의전당 야외주차장, 월명체육관 정문앞 주차장, 디오선시터철길공원주차장(금강도서관 옆), 구시청광장 공영주차장(이성당 앞)으로, 내년에도 주요 관광 및 공공시설 등 거점지역 설치로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사업을 지속할 것이다.

시의 전기차 관련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보급 홍보는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기대하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또 시는 전기차 보급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만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 집중 점검과 시민 홍보를 병행하는 등 전기차 충전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시행으로 올해 초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청소년시설 간담회 실시

군산시의 청소년 사업 발전을 위해 실시한 간담회가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주요 청소년 시설 5개소를 방문해 시설종사자와 소통을 통한 청소년사업의 발전을 위해 청소년시설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청소년 시설의 시설장을 비롯한 시설종사자들이 자리를 함께해 시설 운영 개선방안 및 청소년사업의 발전방향 등을 함께 논의했다.

또 시설종사자의 사업추진 중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청소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이진실 아동청소년과장은 "군산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



는 청소년 시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군산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향후에도 여러 청소년 현장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통해 청소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금강정수장 소독설비 개선

익산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제공하기 위해 금강정수장 소독설비 개선공사를 실시한다.

시는 염소가스 소독설비를 대체하는 차아염소소나트륨(이하 차염) 설비를 내달부터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강정수장은 현재 염소가스를 수돗물 소독에 사용하고 있는데, 염소가스는 독성가스로서 사고 발생 시 정수장 인근 주거지가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

차염은 염소가스를 대체하는 소독제로서, 액상이므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누출 위험이 없어 안전한 수돗물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염소가스보다 소독냄새를 저감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수돗물을 제공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체육대회 성황리 종료

익산시는 코로나9로 지친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위해 행복한 힐링 시간을 선물했다.

익산시지역아동센터 연합회는 제11회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체육대회를 지난 28일에 팔봉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소속 35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종사자, 학부모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모두가 행복한 축제의 장이 만들어졌다.

2인 3각 경주, 바구니 공 던지기, 한마음 파도타기 등 신나는 게임과 문화공연 관람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였으며, 이벤트를 통해 아동들에게 전통놀이 세트 상품과 소정의 후원품을 선물해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축제의 시간을 만들었다.

오택립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하는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아동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된 걸 축하드린다"며 "체육대회로 상호소통과 협력을 통해 진심으로 하나가 되는 장을 마련하고 큰 위로와 희망을 선물해 기쁘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